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21년 / 3월 5주차

■ 영상 택배 시즌 2 - 귀신사(歸信寺) 가는 길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귀신사 가는 길"입니다.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귀신사는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지금은 낮은 담장과 넓은 들판에 자리 잡은 아담한 절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을 양성하던 사찰이었으며 소설가 양귀자씨가 지은 <숨은 꽃>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깊이 있는 절, 귀신사를 찾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25분을 청해봅니다.

또 다른 동화의 세계를 찾아 영국으로(1)

피터 래빗의 고향 호수지역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영국의 동화작가 비아트릭스 포터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먼저 그녀가 살았던 그곳의 자연환경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영국의 풍경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문(人文)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대개 시각적인 관점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영국 특히 호수지역이 보여주는 웅장한 산과 초록 나무와 푸른 호수 등 가시적인 풍경에 우선 감동이 되고, 또한 그 이면에서 감지되는 어떤 풍금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수지역 풍경에는 식물학적 생태계만의 경치가 아닌 인문학적인 무엇인가가 그 풍경 속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풍경 속으로 감정 이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평온해 지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사라진다. 필자의 체험에도, 하루 종일 걷다가 피곤해졌을 때 호수가 잔디에 앉아 호수의 맑은 수면을 보고 피로가 풀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실제로 런던 등 영국 대도시의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실의에 빠지게 되면 호수지역을 찾는다. 그들은 호수지역의 자연에서 휴양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신의 활력을 되찾는다. 이것을 두고 자연치유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영국인들은 호수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곳을 가려면 우선 런던으로 가야한다. 그런 다음 유스턴(Euston)에서 글라스고 행 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면 옥슨홀름(Oxenholme) 역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20여분 달리면 윈더미어 역에 닿는다.



런던 유스턴 역



호수지역 관문의 윈더미어 역

그런데, 기차는 윈더미어 역에 멈추고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종착역이기 때문이다. 호수지역의 아름다운 경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기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다니!

그 이유는 이러하다. 1844년 철도회사에서 호수지역을 관통하는 철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 때 영국의 계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1인 시위를 한 셈이다. 그는 「이 호수지역에 철도가 들어오는 것은 이곳의 자연체계를 붕괴 시키고, 주민들의 정신생활까지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맹렬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간지 모닝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푸르른 들판, 맑게 흐르는 강물, 풍요로운 숲 등 보통의 전원 풍경은 누구에게나 사랑 받고 있지만, 이를 넘어선 미의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위산, 벼랑, 격류 등 정말로 이 호수지방을 두드러지게 하는 숭고한 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교양이 몸에 배는 사이에 길러지는 것이다. 요코가와 세쯔코, 『토토로의 숲을 찾다』, p. 20.」라며 경치를 가로질러 철길을 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후 3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철도부설 계획이 세워졌지만, 이때는 옥스퍼드대학 교수인 존 러스킨이 나섰다. “케즈워과 윈더미어 강가에 어리석은 여행자 무리가 부대에서 내팽개쳐진 석탄처럼 털썩 주저앉아 술 한 잔 걸치면서 헬린의 산을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앞의 책 p. 21)라며 워즈워드의 뒤를 이어 자연파괴에 대해 극구 반대를 하였던 것이다.

이 결과 이후로는 철로부설 계획이 무산 되었고 지금까지 호수지역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도 아름다운 호수지역 계속)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 아홉 번째 이야기

단석산과 오산서원 - 하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옥산서원

오후에는 옥산서원으로 갔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1573년(선조 6)에 창건된 서원이다. 사액 서원이기도 한데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곳 가운데 하나다.

서원은 맑고 시원한 냇물을 끼고 자리를 잡았다. 선생께서 관어대(觀魚臺)·탁영대(濯纓臺)·세심대(洗心臺)·징심대(澄心臺)·영귀대(詠歸臺)라고 명명한 천변의 오대(五臺) 가운데 서원은 세심대를 차지했다. 세심대는 용추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로 마음을 씻고, 싱그러운 자연을 벗 삼아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란 뜻이 담겼다.

아무튼 이곳은 검은 바윗돌이 널찍하게 펼쳐지고, 주변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그늘을 드리우는 곳이다. 지난날 한여름을 맞은 젊은 선비들이 심성을 도야하며, 우렁우렁 유교 경전을 읽었던 곳이다. 한가하게 천변을 거닐면서 한시를 읊조렸던 곳이다.



옥산서원 세심대

문득 영귀대란 이름의 배경이 된 『논어(論語)』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뜻하는 바를 묻자, 대부분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욕망만을 내비쳤다. 그러나 내내 비파를 타고 있던 증점(曾點)이 “늦봄을 맞아 봄옷이 완성되면, 관을 쓴 젊은이 대여섯과 아이들 예닐곱을 데리고서,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 뒤 노래하며 돌아오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공자는 감탄을 하며 “나는 증점과 함께하겠다.”라고 하였다.

서원의 위쪽으로 올라갔다. 선생께서 41세가 되던 1516년에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독락당(獨樂堂)이 등장한다. 자옥산(紫玉山)이 큰 팔을 벌려서 품고 있는 형세다. 근실한 성리학자의 거처답게, 아주 단정하고 말끔한 모습이다.

마루 쪽에서 바라보이는 계곡은 차라리 한 폭의 그림이었다. 선생의 독립 공간이었던 계정은 운치가 더욱 흘러넘쳤다. 며칠간 이 정자에 유숙을 청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싶은 욕망이 절로 솟았다. 계정(溪亭)이란 글씨는 한석봉의 필체다.



독락정

선생의 높은 학문과 고결한 인품을 흠모하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뒷날 이곳을 찾아와 「계정」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읊었다.

시냇물 맑기가 마치 거울 같고
 초가집 좁기가 배 닮았는데
 헛된 꿈에서 막 돌아와
 애오라지 소승의 선을 닦는다고
 밥알 던져 물고기가 먹는 걸 보고
 노래 멈춰 백로가 잠들길 기다리며
 사립문짝 종일토록 닫아건 채
 홀로 앉아있어도 마음 유연하다오

溪水清如鏡(계수청여경) 茅堂狹似船(모당협사선)
 初回大槐夢(초회대괴몽) 聊作小乘禪(요작소승선)
 投飯看魚食(투반간어식) 停歌待鷺眠(정가대로면)
 柴門終日掩(시문종일엄) 孤坐意悠然(고좌의유연)



계림에서의 차경



계정 편액, 퇴계 선생의 글씨

밤에는 불빛 밝힌 금장대(金藏臺)와 첨성대, 동궁과 월지, 월정교(月淨橋)를 하나씩 찾아다녔다. 인적 끊긴 금장대는 경주 시내의 야경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방문객이 부쩍 줄어든 첨성대는 밝기를 낮추었고, 동궁과 월지는 밤을 맞아 더더욱 화려해졌다.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瑤石公主)의 사랑 있던 문천(蚊川)의 월정교에도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옛날 원효 대사가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내줄 건가? 내가 하늘 떠받칠 기둥을 만들리라[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다고 한다. 이 노래를 들은 태종 무열왕은 그 안에 담긴 뜻을 알아채고, 신하 하나를 시켜 대사를 공주에게 보내도록 일렀다. 그때 마침 대사가 남산에서 내려와 월정교를 지나다가, 멀리서 자신을 찾는 신하를 보고 다리 위에서 문천으로 몸을 던졌다. 깜짝 놀란 신하는 흠뻑 젖은 대사를 부랴부랴 월정교 바로 옆에 있던 요석궁으로 모시고 가 옷을 말리게 하였으니, 대사는 자연스럽게 공주 곁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 얻은 아들이 바로 설총(薛聰)이라고 한다. 월정교는 문천교(蚊川橋)라고도 부른다.

찰나 같은 시간 속에 2,000년이 훌쩍 흘렀는가? 불빛에 물든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역시 막걸리 2병이 꼭 필요했다.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열 번째 이야기 “신라의 보물들”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